

중국 계림(桂林)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2016. 06. 12. ~ 2016. 06. 17.)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목 차



1. 연수 개요	1
■ 연수 국	1
■ 연수 목적 및 기간	1
■ 주요 방문지	1
■ 연수 참가자	2
■ 연수 일정	3
2. 연수지역 현황	4
■ 중 국	4
■ 계 립	7
3. 주요 방문지별 연수 내용	8
4. 시사점 및 정책연계	13
5. 연수 총평	15

1 연수 개요

■ 연수 국 : 중국(계림)

■ 연수 목적

- 정책개발 능력 함양 및 관광교류 국제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기회를 삼고자 함
- 다양한 문화체험과 연수국의 문화·관광자원화 정책 등 비교 견학을 통한 국제적 동향 파악
- 선진정책 등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 활동 능력 배양

■ 연수 기간

- 2016. 6. 12.(일) ~ 6.17.(금) / 4박 6일

■ 주요 방문지

- 계림
 - 칠성공원 : 계림시 국가1급 테마종합공원 탐방
 - 은자암동굴 견학 : 세계 카르스트 예술의 보고
 - 세외도원 탐방 : 중국 각지역의 민족의 생활풍습 체험
 - 남계산공원 : 계림의 전통공원 백룡동굴
 - 정양보행거리 문화탐방

■ 연수 참가자

시·군 의회		연수참석 대상자	비고
10개 시·군 의회 직원 21명(남16, 여5)			
남양주 (3)	실무위원(인솔책임)	이 성 구	M
	행정7급(인솔담당)	강 종 인	M
	전산7급	장 혜 선	F
성남(6)	사무국장	전 형 조	M
	행정6급	이 용 담	M
	행정6급	유 형 주	M
	사무운영 7급	최 남 경	F
	행정7급	김 기 태	M
	행정8급	김 은 아	F
용인(2)	행정7급	김 민 기	M
	운전7급	김 학 민	M
광주(1)	행정7급	유 선 주	F
이천(2)	행정7급	한 혜 진	F
	운전6급	류 학 선	M
구리(1)	행정6급	김 완 겸	M
하남(2)	행정6급	이 태 환	M
	운전6급	이 원 우	M
여주(1)	운전7급	김 상 수	M
양평(2)	행정8급	이 정 우	M
	행정8급	이 영 욱	M
가평(1)	행정7급	박 인 성	M

연수 일정

월일	지역	교통편	시간	주요 일정	비고
1일	인천		17:30	인천 국제공항 3층 출국장 집결	
		OZ325	20:30	인천국제공항 출발	
6/12 (일)	계림		23:25	계림 국제공항 도착	
				호텔 체크인	
			숙소	LJIANG WATERFALL HOTEL 또는 동급	
2일	계림	전용버스	08:00	호텔조식	
			10:00	우수 관광자원 견학(요산)	
			13:00	중식	
6/13 (월)			14:00	문화 시설 탐방(칠성공원)	
			18:00	석식	
			숙소	LJIANG WATERFALL HOTEL 또는 동급	
3일	계림	전용버스	08:00	호텔 조식	
			09:00	우수 관광자원 견학(이강 및 관암동굴)	
			12:00	중식	
6/14 (화)			14:00	우수 관광자원 견학(첩재산 및 천산공원)	
			18:00	석식	
			숙소	LJIANG WATERFALL HOTEL 또는 동급	
4일	계림	전용버스	08:00	호텔 조식	
			09:30	상공산	
6/15 (수)	양삭		11:00	문화 탐방(서가재래시장)	
			12:00	중식	
			13:30	우수 관광자원 견학(대용수 및 은자암 동굴)	
			18:00	석식	
			숙소	YANGSHUO NEW WEST STREET INTERNATIONAL 또는 동급	
5일	양삭	전용버스	08:00	호텔조식	
			10:00	문화 탐방(세외도원)	
6/16 (목)	계림		13:30	중식	
			15:00	우수 시설 견학(우산공원 및 남계산공원)	
			18:00	석식	
			19:30	문화 탐방(정양보행거리)	
			21:00	공항으로 이동	
6일 6/17 (금)	계림		00:25	계림 국제 공항 출발	
	인천		04:55	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해산	

2

연수지역 현황

■ 중국 (中國, China) 현황



- 위 치 : 동경 73°~135°, 북위 23°~53°32'
- 기 후 : 국토가 넓고 변화가 풍부하므로 기후 역시 한 나라 안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름기온이 35°C를 넘는 장강연변이 있는가 하면, 겨울 기온이 -30°C까지 내려가는 동북지방도 있다. 실크로드 지방에서는 밤낮의 기온 차가 20~30°C까지 나기도 한다.
- 면 적 : 9,596,961km² 세계4위 (CIA 기준) , 한반도의 약 44배
- 인 구 : 13억 5,404만 명(2012년 말 기준)[*인구수 세계 제1위]
- 수 도 : 베이징 (Beijing)
- 행정구역 : 4개 직할시, 22개 성, 5개 자치구, 2개 특별자치구
(중국 정부는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함)
- 언 어 : 한어(漢語; Chinese) [*표준어: 보통화(普通話; Mandarin)]
- 국가형태 : 노농(勞農)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국가(1982년 개정헌법 제1조 규정)
- 정부형태 : 실질적 공산당 일당독재(형식상 8개 정당 존재)
- 민 족 : 한족(漢族)과 55개 소수민족(1억 1,379만 명, 총 인구의 8.5%)으로 구성
- 화폐단위 : 위안(CNY, 元)
- 종족구성 : 중화 민족은 총 56개 민족 -한족(91.5%) 기타 55개 소수민족(8.5%)
- 종교 : 5대 종교 불교(BC.2), 도교(2세기경), 천주교, 이슬람교(7세기경), 기독교(19세기경) 등

■ 중국의 정치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창설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 존속해왔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조는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 아래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사상, 인민민주주의독재와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궁극적 목표를 무계급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데 두고 이를 위해 과도기적으로 사회주의하의 공산당 일당 독재를 실시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는 공산당내에서의 노선을 통한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우선시하는 노선과 실용주의 노선간의 갈등의 중심적인 축을 이루어왔다. 정치갈등이나 권력갈등의 양상은 주로 주요한 국가노선이나 정책이 결정되는 전국인민대회를 통해서 드러난다.

헌법상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대내외 중요사안에 관한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각 지역과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2,900여 명(최고 3,500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년에 한 차례 정도밖에 열리지 않아 헌법상의 최고권력기관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서방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공산당의 주요정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권력은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다. 왜냐 하면 대내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권력자인 국가주석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되기 때문이다. 무장력을 통솔하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 역시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선거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부주석과 군사위원회 위원을 지명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 중국의 경제

● 1979년 대외경제개방 시행 이전의 중국 경제발전 전략은 자본축적을 가속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을 고도화하는 것이었다. 생산부문에서는 농촌인민공사, 공업부문에서는 국영기업이 위주였으며, 배분에서는 일괄구매·일괄판매[統購統鎖] 방식이 주로 행해졌고, 소비는 각종 배급증표(配給證票)를 이용하였다. 1979년 이후 착수한 경제개혁은 이러한 지난 시기 개발전략의 성과를 토대로 결함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즉 농촌에서는 농업생산책임제를 도입하여 인민공사가 해체되었고 도시의 기업도 공유제(公有制)에서 다원화된 소유제 구조로 전환하여 개체소유제(個體所有制), 개인소유경영, 각종 경제연합체 등 다양한 소유형태로 발전하였다. 경영과 소유의 분리가 인정되었으며, 경제활동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권을 다원화시켰다. 또한 지령성(指令性)계획 위주의 경제계획을 지도성(指導性)계획으로 전환하고, 국가는 중장기 계획만 담당하여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였다. 분배의 측면에서도 국가 이익을 강조하던 것에서 집단(기업)과 개인(노동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제도로 전환되고 자유시장이 부활되었다.

■ 중국의 군사

● 중국의 군대편성 특징은 군대와 중국공산당 간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에 의해 통솔된다. 이 군대에는 말단 부대에 이르기까지 당조직이 있고 연대 이상에는 정치위원이 있어 정치사상교육을 담당한다. 정규군 외에 방대한 민병이 있는데, 이는 마오쩌둥의 인민전쟁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전문가의 집단인 정규군과 인민대중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인민전쟁론의 핵심이다.

인민해방군은 전투부대일 뿐만 아니라 공작대, 생산대이기도 하다. 마오쩌둥은 인민해방군의 정치적 역할을 중시하였으며 문화혁명 기간에 인민해방군은 당과 행정기구를 대신하여 통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떠맡기도 했다. 중국군에는 원래 계급제도가 없고 사단장, 중대장 등 장교에 해당하는 지휘원과 일반 병사인 전투원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홍군(紅軍)·팔로군(八

路軍)을 통하여 인민해방군의 전통을 계승한 이른바 장병일치(將兵一致)의 원칙에 기초를 둔 것이다. 군인 225만명, 전차 7,000여대, 전투함 63척, 1천톤이상의 잠수함 69척, 핵잠수함 12척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300~4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여 미국, 러시아 다음의 핵강국이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S)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탄두 미사일과 위성요격 시스템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 계림 <구이린, Guilin, 桂林(계림)>

● 계림은 일찍이 진(秦)나라 때부터 발달한 화난[華南] 최고(最古)의 도시이며, 한때 광시성[廣西省]의 성도(省都)가 된 적도 있다. 계림의 명칭은 이곳이 예로부터 계수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계수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곳’이라는 뜻이다.

● 빼어난 풍치로 예로부터 시인과 화가들의 글과 그림의 소재가 되어왔다.

‘계림의 산수는 천하 제일이다(桂林山水甲天下)’ 라는 명성을 들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중의 하나이다. 특히 독특한 모양의 기암괴석으로 유명한데, 이 기암괴석은 카르스트지형인 이곳에서 지각변동으로 인해 해저가 지형적으로 돌출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기묘한 형태의 지형은 각종 영화의 배경장소로도 이용되었으며, 중국 영화 《소림사(少林寺)》 도 이곳을 무대로 한 것이다.

● 연평균 기온은 18.8℃이다. 아열대 기후로 4계절 내내 따뜻하여 사람이 살

기에 적당하다. 예로부터 하천교통의 요충지였고, 오늘날에는 상구이[湘桂] 철도가 개통되어 전통적인 상업 외에 면방직을 중심으로 화학·정비·농기구·제사·제지공업이 활발하다.

● 구시가는 당(唐)나라 때 구축한 석회암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안(對岸)에는

시가지가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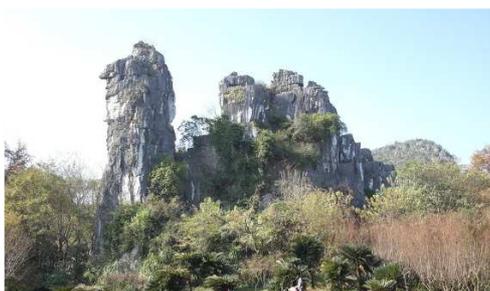
3 주요 방문지별 연수 내용

● 요산

요산은 계림시내에서 8km 떨어진 동부에 위치해 있다. 주봉해발이 909.3m 이고 지면높이가 760m로서 계림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주당시기에 산위에 건설된 요제묘로 요산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중국에서 제일 완벽하게 보존된 고대릉묘군 명나라 정강왕들의 무덤이 요산밑에 있다. 요산 주봉에 오르면 계림주위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자연풍경과 고대릉묘군이 함께 이루어진 풍경명승구이다.

● 칠성공원

칠성공원은 구이린(계림)동쪽에 있는 공원이다. 봉우리 7개가 마치 북두칠성처럼 늘어선 모양이라고 해서 이름이 칠성공원이라 불리며, 길이 125m의 돌다리인 화교를 건너서 공원으로 들어서면, 안에는 월아산, 칠성암, 낙타산 등의 바위산들과 구이린 이곳 저곳에서 볼 수 있는 동굴 중의 하나인 용은동 등이 있다. 용은동 부근에는 당·송나라 때의 비석들이 남아 있는데, 이 비석들을 일컬어 계해비림이라고 부른다. 이곳에 있는 장비각에는 구이린 곳곳에서 모아진 비석 등에서 본을 뜬 탁본들이 수장되어 있다.



● 이강유람

계림관광의 절정은 역시 계림에서 양삭까지 83km에 이르는 **이강 유람**이다. 이 구간은 신속 깊숙하게 돌아 흐르며 진귀한 유형을 하고 있는 봉우리들이 많이 있어 “현세 속의 선경”이라고 불린다. 이강 주위의 선착장에는 많은 유람선들이 있어서 배를 타고 천천히 주위의 경관을 즐기는 것도 좋다. 고기잡이 선수인 가마우지는 이강의 명물 가운데 하나로, 황소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 운이 좋으면 이강 유람 도중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가마우지는 대개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보다는 밤에 볼 확률이 높다.



● 관암동굴

관암동굴은 계림으로부터 약 10km의 거리의 남쪽 초평향에 있는 멋진 중유석동굴이다. 관암의 길이는 12km이며 이미 이강에 인접한 3km는 개발이 되어 공개되어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호가 잘 되어 있어 동굴 안에는 중유석, 석주, 석순 등이 모두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동굴의 입구가 높으며 이강과 맞대고 있다. 관암은 총 4부분으로 나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바깥쪽의 동굴이 그중 제일 크고 높으며 이강의 물이 흘러 이강과 연결이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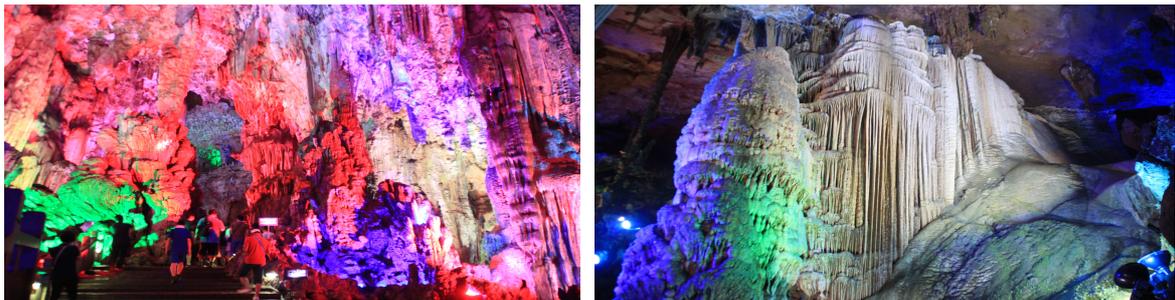


● 은자암동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함을 간직한 종유석 동굴인 **은자암**은 세계 카르스트 동굴의 표본으로 갖가지 형태의 종유석을形形色색으로 가꾸어 놓아 장관을 이루는 환상적인 곳이다. 계림시에서 85km, 양삭에서 3km 떨어져 있는 은자암 동굴 앞으로는 넓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으며, 아름다운 소청산과 조채산이 우뚝 솟아있다.

은자암 종유동굴은 그 규모나 아름다움이 상상을 초월한다.

은자암은 마치 거대한 천연 분제화분과도 같다. 그 규모가 엄청나 무려 12개의 산봉우리를 관통하고 있다. 은자암은 주위 산에 둘러 쌓여 있고 천애절벽으로 유명하여 계림산수의 걸작이라고 불리고 있다. 은자암은 다층식 종유동에 속하며, 관광구역으로 개발한 2km구간은 크게 하동(下洞), 대청(大厅), 상동(上洞)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지역마다 각기 다른 지질년대에 발육 성장한 다양한 유형의 종유석이 수 십 개의 특색 있는 경치를 자아낸다. 은자암동굴의 수많은 종유석 중 파이프 오르간을 연상시키는 종유석과 광한심궁, 설산비폭이라는 명칭의 종유석은 삼절(三絶)이라 불린다. 수 십 개의 불상들을 모아놓은 듯한 종유석과, 가느다란 종유석이 천장을 바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진주우산이라 불리는 종유석은 삼보(三寶)라 불린다. 은자암동굴은 웅장하면서 기이하고 우아하면서도 아름다움을 극치를 보여주어 지질 전문가들에게 "세계 카르스트 예술의 보고"라 불리고 있다.



● 천산공원

천산공원은 계림시의 동남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계림시에서 산과 물이 어울어진 공원중의 하나로 전체 면적은 2평방킬로미터 정도다. 공원에는 천산과 탐산이 있으며, 이강의 지류인 소동강이 그 사이를 굽이굽이 흘러 지나간다. 천산의 산기슭에는 천산암, 천암, 월암 등이 있고 산꼭대기에는 천산정자가 있다.

천산은 도시 중심에서 약 3.5키로 떨어져 있고 높이가 224미터, 총 면적이 31.76헥타어에

이른다. 천산은 5개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데, 생김새가 수탉같이 생겨서 서동쪽이 머리, 남북쪽이 양날개, 중간 봉우리가 등, 서쪽 봉우리의 월암은 닭의 눈 같다.

천산암은 천산 산반에 있는 특이한 용암동굴인데, 총길이가 1,531미터, 넓이가 3~5미터, 면적이 0.96헥타아르다. 3,400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77년에 발견되었다. 동굴 안에는 이름답고 찬란하면서도 기묘한 중유석, 돌죽순, 돌기둥, 돌커텐, 돌방패 등이 있으며 보기 드문 돌나무가지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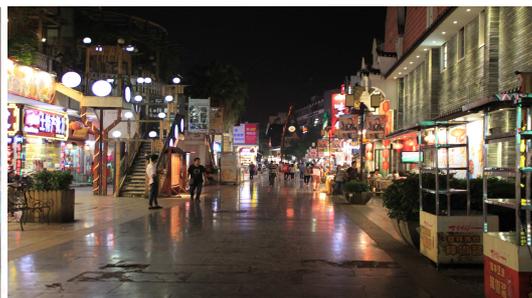
천산공원을 유람할 때 산을 등반할 수도 있고 동굴을 구경할 수도 있다.



● 서가재래시장

서가재래시장의 서가는 서쪽 길이란 의미의 ‘서가’이다. 서가재래시장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전통공예품을 팔며, 그 나라의 특색을 녹여낸 건물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인사동 거리 일대와 매우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시장의 모습은 여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에서 느낄 수 있는데 각종 장식품들을 비롯하여 전통 방식으로 짜낸 직물들, 가방 등이 있으며 동남아시아 일대와 중국 남부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소 빨로 만든 장식품들도 판매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물소 빨이고 이 물소 빨로 빗과 기타 장신구들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차를 많이 마시는 중국 답게 서가재래시장에서는 차도 팔고 있는데, 이곳 광서 좡족자치구의 서쪽이 보이차의 산지인 윈난성(운남성)인 만큼 보이차를 많이 마신다.



● 세외도원

고대 중국의 유명한 문학가이자 시인이었던 도연명이 지은 <도화원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사람들은 책 속에 묘사한 전경을 자신들이 항상 마음 속에 간직해왔던 이상 속의 세계로 여기며 이것을 세외도원이라 불렀다. 산수의 아름다움이 천하제일이라는 계림의 양삭이라는 곳에 "세외도원"이라는 곳이 있다. 일찍이 2000여년 전 이곳은 한나라 이래로 오래된 역로(驛道)가 있었던 지역으로 지금은 적지않은 한대의 고분유적이 남아있다. 필가산 일대의 10여리 주변에는 이곳 주민들이 심어 놓은 복숭아나무가 고르게 서있으며 매년 3월이면 이름 그대로 도화(복숭아꽃)가 만발하여 꽃구름을 만드는 동시에 옆에서는 황금색의 유채화와 눈처럼 흰 여채화가 가득 피며, 자홍색의 홍화초가 그 주변을 장식하여 마치 알록달록 오채색이 섞인 비단에 새겨 넣은 자수를 보는 듯하다. 오귀하(烏龜河/거북이강)의 양안과 연자호(燕子湖/제비호수)주변은 십만그루에 달하는 각양각색의 복숭아나무 꽃이 푸른 산 밑 촌락과 길을 장식하고, 길을 따라 지어진 전원풍의 전통 가옥과 실개천의 오래된 다리, 깊게 난 동굴, 밭에서 일하는 촌민의 모습은 한 폭의 이상향을 담은 세외도원 풍경화를 담은 듯하다.



■ 계림의 공공자전거 시스템

- 전기 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여 페달식 자전거와 병행하여 전기 자전거의 대중화 및 공공화 정책을 추진함

우리시 정책 연계

전기자전거 정책에 있어서는 향후 전기자동차 특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추진함이 필요

■ 친환경 도시정책 요산과 이강

- 계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자 환경자원인 **요산과 이강**은 중국 계림 정부에서
친환경적으로 보호하고 보존
 - 계림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이강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수십만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하여 추진
 - 지역발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
- 가로수 하나에도 친환경적 도시개발 정책 추진
 - 계림 가로수 70%는 계수나무, 관상조경수 집단재배
 - 계림의 거리는 전봇대나 통신시설이 요란하지 않음
 - 차도와 인도, 이륜차의 적정한 분리수단으로 가로수 채택
 - 가로수 마다 천연라텍스를 칠하여 병충해 방제와 야간 불빛반사기능으로 차량 안전운행 도모

우리시 정책 연계

우리시 유희부지에 대한 개발 정책에 자연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개발 정책 우선 추진
※ 난 개발을 통한 대부도 개발 정책 억제하고 자연, 관광, 사람이 중심이 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필요

■ 관광의 중심 계림

- 계림은 장가계와 더불어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수상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상공원과 세계적인 공연시설을 갖추고 있음.
 -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유명
 - 우리나라 제주도와의 자매결연을 맺어 수년째 다양한 교류와 관광자원 개발과 보호에 대한 개발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 추진
 - 중국 내국 관광객 보다 더 뛰어난 구매력이 있는 한국 관광객에 대한 관심 집중
 - 한국어 관광 안내지도 및 책자 배포, 주요 관광지 한국 안내 표지판 표시
- 사회주의 국가지만, 계림의 핵심 정책은 관광
 - 관광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한 계림 특유의 관광객 유입 정책 개발
- 계림 요산의 ‘뽕슬레이’, 관암동굴의 ‘모노레일’ 등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
 - 요산 정상에서의 하산 시 체형형 액티브 시설인 ‘뽕슬레이’
 - 지나가면서 농경작물 재배 현장 등을 볼 수 있는 ‘모노레일’

우리시 정책 연계

우리 시 여건과 비슷한 외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으로 우수관광자원에 대한 개발 공조와 인적 교류를 실시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계림 서가재래시장

- 중국과 서양이 만난 이국적 풍경의 거리
 - 서양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내국인 보다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특성화 시장

우리시 정책 연계

시설적 투자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대형 마트와는 다른 ‘시장’만이 갖춘 차별화)

- 연수 전 중국은 드넓은 대륙의 화려한 관광지와 다양한 먹거리로 정치적으로는 예전 공산국가의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자유 시장 경제체제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컸음.
- 예상대로 중국은 정치 외에는 자유가 있는 나라였고 또한 각종기술, 농업, 공업, IT 등 전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었음. 계림의 야시장에서도 느낀 바이지만 중국은 활력이 넘쳤고, 문화유적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고 있어 어찌보면 우리나라 보다 앞선 분야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됨.
- 언젠간 중국경제의 정체시기가 오고 인권이 문제가 될 것이며, 사회복지가 문제가 되는 날도 오겠지만 산아제한 완화처럼 능동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정책을 편다면 더 나은 국가가 되리라 생각됨. 이번 중국을 방문하며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지역을 고르다 중국 계림을 선택했는데, 예상대로 유익한 일정이었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연수의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여 앞으로의 우리시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일 것임. 비록 짧은 시간 내에 큰 변화와 많은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이번 연수의 경험이 향후 우리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임.